

전남대, 고성능 반도체 핵심기술 ‘패키징’ 인재 키운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와 공동연구소 설립 실증 연구 등 수행
데이터 처리 속도 높여 전력 감축...5극3특 국토 전략 구체화 사례

전남대학교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가 함께 구축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대학교는 12일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캠퍼스에서 전남대-앰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 헌판식을 열고, 대학과 산업이 함께 반도체 후공정 핵심 기술을 연구·교육하는 산학협력 거점의 출범을 알렸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포장해 기기에 연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공정으로 여러 개 서로 다른 칩을 하

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만 3606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설비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합작 패키징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과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 민형배 국회의원,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준기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장, 김순중 전남대-앰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대학·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남대-앰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는 고성능·고집적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 실증 연구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산학협력 거점이다.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과 글로벌 기업의 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연구 성과가 곧바로 산업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동연구소에는 반도체 패키징 장비가 구축돼, 학생과 연구자들이 산업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구·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AI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AI 기반

지능형 공정 개선 기술 등 국가 전략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소 출범은 지역 거점 국립대와 글로벌 기업이 협력해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현장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지역 인재의 정주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은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로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며 “광주에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앰코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학생들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증 중

심 교육이 인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연구소는 앰코코리아가 축적해 온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경험과 전남대학교의 연구 역량이 결합된 협력의 장으로, 대학의 교육·연구와 기업의 산업 현장이 융합되는 새로운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남대학교는 공동연구소 헌판식에 이어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에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진안 대표는 ‘AI 시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진화’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교육’ 장관상 3관왕

다문화·북한배경학생 교육 성과
2년 연속 우수...맞춤정책 효과 입증

전남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한 ‘제17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16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 3개를 수상하며 이주배경학생 교육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학생 부문에서는 순천매산중학교 이은정 양이 그리기 분야에서 ‘색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 된 우리’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하트 모양의 심장으로 형상화해 마음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표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식 개선의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평가다.
교원 부문에서는 영광백수중학교 김해숙 교사가 이주배경학생 지도사례 분야에서 ‘설리번처럼 한국어를 가르치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소통과 신뢰를 중심에 둔 현장 밀착형 지도 경험이 주목받았다. 김 교사는 시상식 현장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수업 장면과 학생 변화



전남도교육청이 ‘제17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16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3개의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 후 촬영한 기념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순천매산중학교 이은정 양,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영광백수중학교 김해숙 교사. <전남도교육청 제공>

과정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또 순천삼산초등학교 육은희 교사는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학습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한 포용적 교육 실천 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배출한 데 이어 2년 연속 우수 성과를 이어가며,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지원과 학교 현장 중심 다문화교육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전성아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나주대실마을 탄소중립 상생 협력

자립마을 리빙랩 구축 협약...교육·연구·실증 협업체계 구축 등

동신대학교 RISE사업단과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이 지역혁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본격 나선다.
동신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강대홍)은 최근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에서 대실마을복지영농조합법인(대표 홍길식)과 지역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자립마을 리빙랩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산·학·연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RISE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을 조성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지역문

제 해결을 교육·연구·실증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연계한 교육·연구·실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학생 참여형 교육·실습 프로젝트 운영, 대학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협력체계 실증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

해남군 일대 주요 관광지...정책·인프라 운영 사례 등 시찰



호남대학교 대학원(원장 김덕모)은 1월 6일 글로벌경영학과(주임교수 양동민) 및 미디어영상공연학과(주임교수 고호빈)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간 융합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
이번 현장실습은 대학원 유학생지원팀이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했으며, 관광·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공 이론을 실무로 확장하고 조사·분석 및 콘텐츠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전반은 엄문연 교수(경영학부)의 현장 지도를 통해 교육적 완성도를 높였다.

대학원 1년 4학기 재학생을 중심으로 총 81명(학생 75명, 인솔교수 6명)이 참여해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의 주요 관광 거점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해남126 오시야호텔에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의 사업 설명을 통해 지역 관광정책과 관광 인프라 운영 사례를 이해하고, 현장 시찰을 통해 관광산업의 구조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학습했다. 이어 산이정원에서는 기업 대표의 설명과 함께 문화콘텐츠 기반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방사선학과, 취업 경쟁력 입증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교육과정 평가 4년 인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방사선학과가 방사선사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질적 우수성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강대 방사선학과(학과장 류영환)는 최근 대한방사선협회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이 발표한 ‘방사선 교육과정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2025.11.27 ~ 2029.11.26)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은 대학의 방사선학 교육

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사선사 인재 양성에 적합한지 비전 및 운영체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 등 6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강대 방사선학과는 이번 교육과정 분야에서 4년 인증을 받고 교육 품질과 전문성 확보 등 방사선사 양성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게 됐다.
또 향후 전 분야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방사선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류영환 교수는 “이번 교육과정 인증 획득이 대학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방사선학과는 3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 후에는 병·의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직 공무원, 원자력 관련 기관, 방사선 응용기술 분야, 생명과학 분야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 2025학년도부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